'전문승'이 의료·출판·모연등 맡아

고려사원의 조직·농지관리 고찰논문 2편 눈길

고려시대 사원의 관리조직과 인적 구성, 사원전(寺院田)경영 등을 밝힌 논문 두편이 동시에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주산업대 한기문교수와 울산대 강사 김형수씨가 한국중세사연구회(회장 김윤곤 영남대교수)의 학술지인 〈한국중세사연구〉 제2호에 발표한 '고려시대 사원내의 관리조직과 소속승의 구성'과 '고려전기 사원전경영과 수원승도(隨院僧徒)'가 그것.

고려시대 사원의 인적 기반을 밝힌 한기문교수는 삼강직제(三綱職制) 등 사원내 관리조직을 비롯, 학승과 전문승(專門僧) 등의 인적 구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한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각 사원내의 조직은 삼강조직으로 통칭된다. 신앙이나 수도보다는 사원내의 재정살림을 주로 맡은 이 조직은 사원내 학승의 수행을 위한 여러 서무와 사역인의 통솔, 사찰재정을 관리하였다.

고려초 삼강직제에 의하면 원주(院主)는 사원의 서무를 총괄했고 전좌(典座)는 의식과 기식을 담당했으며 직세(直歲)는 수취를, 유나(維那)는 사역인을 동원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또 사원 재정에서 보(寶)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보장(寶長)과 색장(色掌)의 직제가 생겨나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변화도 있었다.

사원에는 학승 이외도 상례와 제례, 의료나 사원장엄의 고급기술, 출판을 맡은 전문승이 있었으며 불사에 세속인의 모연(募緣)을 유도하는 동량승(棟梁僧)이 있었다. 특히 사원의 보수와 불구제작과 관련된 공장승(工匠僧)과 사원의 전지(田地)를 경작하다 사원의 토목공사 혹은 승병으로 징발되기도 하고 사원의 후광을 업고 장사를 하기도 하는 이들인 수원승도는 사원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지금까지 고려초 사원내의 관리조직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고려시대 선반에 걸쳐 존재했을 관리조직을 복원하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소속승려의 구성에 대해서도 수원승도를 중심으로 연구된 적은 있지만 의승(醫僧) 술승(術僧) 지리업승인(地理業僧人) 등 전문승까지 다뤄지진 않았다.

한편 처음으로 사원전 경영에 있어서의 생산관계와 일반적인 고려시기 생산력을 결부시켜 연구한 김형수씨는 고려시기 민들이 사원에 예속되어 생활하게 된 배경과 사원예속민의 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김씨는 수원승도와 관련, 보와 구휼(救恤)을 통한 농민지배로 규정하고 도솔사 통도사 정혜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선정하여 사원의 농민·향촌지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졌는가를 분석했다. 김씨는 사원전의 경영을 크게 장(莊) 및 소유지와 수조지(收租地)에서의 경영으로 나누고 농업생산력적인 관점에 입각, 사원전의 경영형태를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충청지역, 인쇄문화 이끌었다

개태사 '범서…' 최초간행…불서통해 기술 전승

이세열씨 주장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충청지역이 고려 조선시대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인쇄문화를 선도해 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성전문대 도서관 열람계장 이세열씨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학술논문집 〈고인쇄〉 제2집에 발표한 '충청지역 사찰판본고(板本考)'에 따르면 충청지역이 인쇄문화의 본고장이었으며 인쇄문화는 사찰 간행물에 의해 기술이 전수계승됐다는 주장이다.

고려 고종 5년(1218) 영산 개태사에서 간행된 〈범서총지집(梵書摠持集)〉이 충청지역에서 최초로 간행된 후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가 제작됐다.

이처럼 고려시대 충청지역은 공주 연산 청주 충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8종의 전적(典籍)이 간행됐으며 특히 충주에서 불서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는 충청권에서 22개 지역 44개 사찰에서 1백70여종의 불서 및 일반서적을 만들었다. 가장 인쇄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공주로 7개 사찰 37종이며 충북에서는 법주사등이 있는 보은에서 4개 사찰 18종이 출간돼 가장 많다.

불교서적 간행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천5백에서 1천6백년대가 많고 조선초기에는 거의 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불교서적중에는 〈묘법연화경〉등 경전이 많은데 실학사상과 천주교가 도입되는 조선후기 이후에는 간행이 거의 중단됐다는 분석이다.

◇충남 공주 마곡사 소장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1(보물 269호).

"실업청소년 선도정책 절실"

청소년개발원 세미나서 김영모교수 제기

가난하고 소외된 실업청소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청소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김영모교수는 지난 20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같은 주제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각종 사회정책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의 5할이나 된다"며 "이들을 위한 청소년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 △자치단체별 청소년수련원 분산·전문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보급 △사회봉사정보센타 설립 △각 대학에 청소년(지도)학과 설치 △청소년정책의 민간주도화 등을 제안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하란 뜻은

문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뜻으로 이해하면 '일심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생명있는 모든 것들에 봉사하고 이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순효·서울 강남구 역삼동〉

답 쉽게 말한다면 마음을 모아 원을 세워서 그 마음 들이고 낸다면 두루 이익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들고나며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일체를 한 마음에 놓고 둘로 보지 않으며 그냥 행하고 말하고…그렇게 하면 일체를 향해 보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일체는 각각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로 돌아가면서 근본자리로 들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아닌게 없고 내 아픔 아닌게 없고 안과 밖의 문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때만 문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설 때도 문입니다. 그렇기에 안과 밖이 따로따로라느니, 바깥이다 아니다라느니 하는 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들어올 때가 되면 들어오고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 것이니 따질 것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귀일심원'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문자풀이에 매달리실 것은 없습니다. 한마음 근본자리에 턱놓고 있다 없다, 안이다 밖이다 따지지 말고 닥쳐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행하십시요. 그렇게 말겨놓은 줄 알면 그대로가 여법하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피워온 담배를 끊고 싶은데

문 담배를 끊어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오랜 습때문인지 금연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 완전히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류경춘·인천시 부평동〉

답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다니 또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처사님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누가 담배를 피우라고 권했습니까? 담배를 끊어보시겠다는데 끊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끊으려 하면서도 계속 피워무는 것은 또 누가하는 것입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무엇이며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습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담배를 맛보는 식, 냄새 맡는 식, 보는 식, 느끼는 식, 그 식이 쌓여서 습이 된 셈인데 나온 자리에 되놓는다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녹음된 테이프를 지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하겠지요? 바로 나온 자리를 알고 되놓는 작업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한 것도 그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안 피우게 하는 것도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늘 말씀드리지만 '피우게 하는 것도 네놈, 안피우게 하는 것도 네놈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콱 맡겨보세요.

놓으려면 그냥 몰락 놓아야지 놓는 시늉만 했다가 다시 들곤 하니 이게 지워지기는 커녕 잡음만 자꾸 입력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지나간 호의 문답들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상선원

진실이 소외된 세상에 일침

김용사

崔殘枯木依寒林
(최잔고목의한림)
幾度逢春不變心
(기도봉춘불변심)
樵客過之猶不顧
(초객과지유불고)
郢人那得苦追尋
(영인나득고추심)

꺾어진 고목이 찬 숲을 의지하고
몇번이나 봄을 만나도 그 마음 변치않네
나무꾼 지나쳐도 돌아보고 그냥가니
영인이 와서 그 고난을 살펴 노래하네

해설 김용사 상선원은 선방이다. 스님들이 불성을 깨닫기 위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는 수행방인 것이다. 이 상선원에서는 현대의 최고승인 성철스님도 꽤 오래 선수행을 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선방은 앞쪽 기둥에 붙은 이 주련이 있으므로해서 더욱 그윽한 선수행도량의 풍치를 말해 준다.

꺾어진 고목은 이미 세상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있다.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로 꺾어진 고목 등걸에 다름아닌채 그곳에 흘로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무꾼도 지나가며 눈여겨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죽어간 나무의 소외된 마음을 한날 '영인(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노래를 부른다.

어찌보면 매우 평상적인 귀절이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진리가 이 주련의 내용속에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소외된 진실'의 문제다. 표현은 꺾어진 고목등걸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리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외면된 사회, 각종 거짓이 득세를 하는 세상,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악의 순환은 그침이 없다.

◇스님들의 수행방인 상선원과 주련.

소외된 진실, 그 맑은 진리의 묘체를 깨달아 이 사회에 전해 줄 '영인'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김용사 상선원에서 참선수행에 몰입하는 수좌들이 종내에는 '영인'이 되어 진리의 노래를 부를 것임을 믿는다.

〈안동 경안중 교사〉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명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